



남산의 계수나무 이야기



남산의 계수나무(4월)



계수나무 꽃(3월)

남산에도 계수나무가 삽니다. 이름은 친숙하지만,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 강점기(1920년) 때 광릉수목원(국립수목원)에 처음 식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 심겨 있고, 남산에는 '돈가스거리' 맞은편과 '한남 야외식물원'에 주로 있습니다.



남산의 계수나무(10월)



어린 계수나무 잎(4월)

달콤한 향기로 주변을 녹이는 계수나무

'달나라에서 토끼가 계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찧는다.'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아시아 설화에도 등장하는 계수나무. 중국 설화에 등장하는 나무는 '목서(桂花 계화)'로 엄밀히 따지면 단풍이 드는 계수나무와 상록수인 목서는 다른 식물입니다. 목서는 꽃에서, 계수나무는 단풍 든 잎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마주 나는 하트 모양 잎

달콤한 향이 나는 이유 가을날 계수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면 솜사탕처럼 달콤한 향기가 주위를 가득 채웁니다. 단풍이 들면 말톨(maltol)이라는 성분이 증가하면서



계수나무 낙엽



단풍 든 계수나무

향기가 납니다. 달콤한 향기로 인해 서양에서는 '캐러멜 트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서



향이 좋은 목서 꽃

계피와 계수나무 계피(桂皮)를 계수나무의 껍질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피와 계수나무 '계(桂)'의 한자가 같지만, 계수나무 껍질이 아닙니다. 계피라고 부르는 식물은 우리나라에는 자라지 않는 '육계(肉桂: cinnamon)나무'를 말합니다. 향이 강한 나무의 이름에 '桂(계)'가 많이 들어가지만, 계수나무와 월계수(月桂樹)는 단내가 나는 식물입니다. 사실이야 어쨌든 우리의 동심은 달나라 계수나무입니다. 보름이 되면 남산에 걸린 보름달을 바라보며 계수나무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글 / 사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